

군인의 내일, 직업훈련으로 준비한다

- 복무 중 역량개발부터 전역 전 새출발 준비까지, STEP·국민내일배움카드·폴리텍 하이테크 과정 등을 통해 훈련 지원
- 전역 후 사회진출도 진로 탐색·훈련·경력관리로 뒷받침

6월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군인은 국가의 내일을 지키는 수호자인 동시에, 자신의 내일을 설계해 나가는 직업인이다. 군 복무는 국가를 지키는 시간이면서, 책임감과 협업 능력, 현장 대응력, 장비 운용, 안전관리 등 다양한 직무역량을 쌓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현직 군인의 임무수행 능력을 증진하고, 전역 이후 새로운 일과 삶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역량개발과 체계적인 경력관리가 중요하다. 직업훈련은 복무 중인 군인에게서는 직무 역량을 높이는 수단이 되고, 전역했거나 전역을 앞둔 군인에게서는 새로운 진로를 준비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이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현직 군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제도와 실제 사례를 소개한다.

[비전공자 현역 군 장교, STEP과 함께 AI 전문가로 거듭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직업교육·훈련 플랫폼 ‘STEP’은 국민 누구나 AI, 기계, 전기·전자 등 다양한 직무 관련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큰 현역 군인도 본인의 일정에 맞춰 관심 분야의 직무역량을 키우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육군 장교 김선웅 씨는 20년 가까이 군 복무를 이어오며 국방 분야에서도 AI·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체감했다. 비전공자였던 그는 STEP을 통해 AI·데이터 분야 학습을 시작했고, 출근 전과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 ‘AI 기반 비정형 데이터 분석’ 등 관련 과정을 꾸준히 수강했다.

김 씨는 STEP에서 배운 내용을 ‘AI 기반 육군 위험성 평가 지원체계 (ARAS)’ 연구와 각종 정책 제안 등에 적용했고, 논문 게재와 데이터 분석 자격 취득 등으로 성과를 넓혀가고 있다. 김 씨는 “STEP을 통해 틈새 시간을 활용하여 꾸준히 학습했던 내용들이 연구와 자격증 취득의 기초가 되었다”라며, “이러한 성과는 개인의 영예를 넘어서 평생학습과 자기계발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올해 STEP에서는 ‘AI와 데이터 이해하기’, ‘AI와 보안 이해하기’ 등 AI 리터러시 과정부터 ‘기계 안전 관리와 AI 기반 리스크 분석’, ‘전기 안전 리스크 분석과 사고 예측 AI’ 등 직무별 AI 활용 과정까지 24개 AI 이러닝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장비 운용, 안전관리, 시설관리 등 군 복무 과정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직무에도 AI·디지털 활용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군인의 직무역량을 확장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문과 출신 장교, 한국폴리텍대학 하이테크 과정으로 IT 직무 재취업 성공]

한국폴리텍대학 하이테크 과정은 AI·반도체·정보통신 등 산업 수요가 높은 분야의 실무형 기술 교육 과정으로, 기초부터 실습 중심으로 배울 수 있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려는 전역 예정자와 직업군인들의 관심도 높다.

해군 장교로 약 11년간 복무한 정선호 씨는 전역을 앞두고 한국폴리텍대학 하이테크 과정을 통해 정보통신 분야에 도전했다. 문과 출신으로 IT 경험이 많지 않았지만, 문제해결 중심의 다양한 IT 실무 교육을 이수했고, 현재는 코레일테크 정보통신 직무에서 철도 재난방송 수신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 씨는 “비전공자라 처음에는 걱정이 컸지만, 실습 중심 교육 덕분에 기술을 빠르게 익힐 수 있었다”라며 “군 생활에서 쌓은 책임감과 경험, 그리고 폴리텍 하이테크 과정의 실무 중심 교육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됐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의무복무 중인 병사, 전역을 앞두었거나 이미 전역한 직업군인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전기·기계·정보통신·조리·산업안전·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2024년 5월부터는 기존 5년 이상 복무자에 더해 5년 미만 복무 후 전역을 앞둔 장교·부사관 등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전역 전부터 직무 전환과 취업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꿈드림공작소’도 전역 예정인 군인이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폴리텍대학은 보유한 시설과 장비를 국민에게 개방해 생성형 AI, 스마트팩토리, 반도체 장비, 자율주행, 바이오 등 다양한 기술 분야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는 2024년부터 국방전직교육원과 함께 전역 예정인 취업맞춤특기병*을 위한 진로 탐색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병역의무자가 입대 전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군 복무함으로써 취업 등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현역병 모집분야

한편, 위와 같은 훈련과정을 통해 쌓은 교육·훈련 이력과 자격, 경력은 직무능력은행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2025년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육군의 임창민 중사는 급양관리관으로 복무하며 한식조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능력은행에 군 복무 전후의 교육·자격·실무 경험을 등록해 경력을 관리했다. 임 중사는 “스스로 조리 관련 역량을 얼마나 갖추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며, “특히, 직무능력은행에 기록된 능력 단위와 군 복무 중의 학습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단순한 경력관리를 넘어 미래 경력설계의 기반으로 작용했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군 복무 기간 역시 개인의 성장과 역량 개발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며 “전·현직 군인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넓히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한국폴리텍대학 직업교육·훈련 및 수료생 사진

담당 부서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병수 (044-202-7269)
		담당자	사무관	지형근 (044-202-7271)
담당 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직무능력기획부	책임자	부 장	유지용 (052-714-8711)
		담당자	차 장	정신혁 (052-714-8776)
담당 부서	한국폴리텍대학 경영관리실 홍보부	책임자	부 장	최진경 (032-650-6740)
		담당자	대 리	김재민 (032-650-6742)
담당 부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홍보팀	책임자	팀 장	황의택 (041-560-1680)
		담당자	담 당	이혜지 (041-560-1681)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꿈드림 공작소' 군인 대상 직업교육·훈련 사진



한국폴리텍대학 하이테크 과정 수료생 정선호님 사진